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9>



노총각의 사랑 찾기

노총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러저러 잘 나가던 벤처사업가였지만 사업이 망하자 엄청난 카드빚만 안은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살아갈 의미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가 이제 믿을 데라고는 결혼 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뭔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빈털터리 남자에게 시집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좌를 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인테리어가 제대로 갖추어진 거대한 저택과 명품 시계며 소지품, 하다못해 양복과 신발까지 최고급 브랜드로 빌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여자와의 첫 대면 시간동안 말입니다. 그 시간안에 여자의 마음을 빼앗으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과연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여자는 근사한 집안과 남자의 품위있는 옷차림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여자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려온 모든 물건들이 계약서에 써놓은 대어시간을 채워가자 하나씩 그의 몸

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무대의 막은 내렸습니다. 갑자기 웬 사랑타령이냐구요?

가을이잖아요. 이런 계절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한 편 정도는 보아야 할 것 같아 모처럼 극장을 찾았답니다. '결혼'이란 제목의 이 아름답고 조촐한 뮤지컬을 감상하는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와 함께 객석의 불이 환히 켜졌을 때 나는 노총각의 사연이 <잡보장경>에서 도깨비들을 만난 한 사내의 처지와 똑같음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늦은 밤 외딴 오두막에서 귀신 들이 시체 하나를 사이에 놓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는 귀신들에 의해 끌려나오게 되고 그 사내는 시체가 누구의 것인지도 말해야했습니다.

사내는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편이 손을 들어주면 다른 편 귀신의 미움을 살 것이고 그리되면 제 목숨을 가져가려 들 것이 때문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저 분이 가지고 온 것'이라며 오두막에 들어온 귀신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나중에 들어온 귀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내의 손과 발과 다리와 몸통을 비틀어 뽑아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 귀신이 차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 시간 지나면 하나 둘씩 떠나갈텐데 말입니다

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두가, 다음에는 값비싼 라이터가, 시계가, 반지가... 결국 그가 입고 있던 고급양복마저 그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는 떠나가는 물건들을 붙잡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그 물건들은 모두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어서 시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남자에게는 팬티 한 장만 겨우 남게 되었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하였습니다. 여자가 승낙할 리 있었습니까? 여자의 실망스런 표정에 남자는 절규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빌린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갔지만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진실한 나는 모습을 드러냈고 당신을 향한 사랑만이 온전하게 자리하게 되었음을..."

결국 노총각은 사랑스런 여인의 결혼승낙을 받아내었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

레대로 시체의 사지와 몸통을 뺏아서 사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내는 아프기도 하거나 귀신들의 조화에 열이 나가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실컷 난리를 피우면 두 귀신은 문득 싸움을 그치더니 주변에 흩어진 사내의 손발들을 먹어 치운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귀신들이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제정신이 든 사내는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이 몸은 나의 몸인가? 시체의 몸인가? 근데 나는 지금 '내 몸'이라고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것들이 정말 내 것 맞는가요? 시간이 되면 다 떠나갈텐데 그런데도 내 것이 맞을까요?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황금빛 은행잎들이 만추의 비를 맞아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던 지난 토요일 밤, 서울 명동의 후미진 골목 끝 극장에서 한 노총각이 빌려온 것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에 마침내 사랑을 찾아 결혼에 골인하였듯이 나도 '진짜 나'를 찾아 삶에 골인해야겠다는 총총히 귀가를 서둘렀던 하루였습니다. ■ 이미령(중국역경원 역경위원)

재산 많이 모으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이 부자되는 길



운산 스님

(아산 능인정사 주석)

산중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속과 담을 쌓고 있는 듯하지만 풀고 맺음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저마다 깨달음을 향해 씩 없이 정진을 이어가기 위한 수행의 지표들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60여년의 산중생활을 지탱해 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맥물 웃을 일게 해 준 평생의 스승 석봉 스님의 가르침이 그것이지요. 석봉 스님이 수행할 때의 일화와 평소 강조했던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석봉 스님은 산중에만 머물던 기인이었습니다. 만공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어느 날 참선을 하겠다고 도반과 함께 금강산 마하연을 거쳐 오대산 상원사로 갔습니다. 금강산에서 마가목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찾아간 상원사 선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보니 문제가 생겨 갔어요. 바로 전남 짚고 온 지팡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화가 난 석봉 스님은 대중에 보는 앞에서 "오늘 밤 인으로 지팡이를 가져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 하룻밤을 묵고 나니 지팡이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선방에 방부를 들이려 해도 함께 간 도반은 받아주면서 스님의 방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석봉 스님은 분통이 터졌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함께 간 도반 스님이 "정말로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면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화를 낸 스님의 모습이 사천왕처럼 무서워서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끝맛하런 화를 내는 스님의 태도가 수행분위기를 해친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석봉 스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길로 석봉 스님은 상원사 조실로 있던 한암 스님을 찾아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절대로 진심(真心)을 내지 않겠습니다. 방부를 받아주십시오." 한암 스님은 "진정 인욕할 수 있던 말이더냐"라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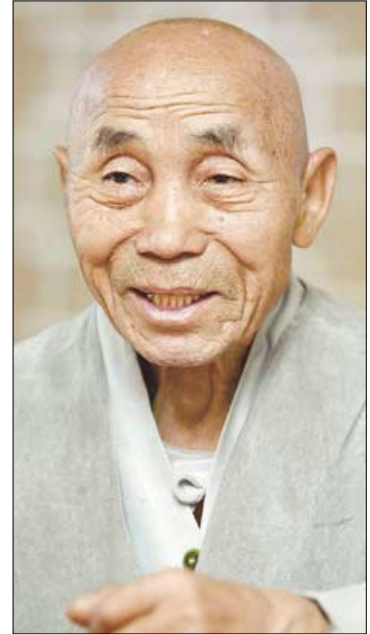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 후 이전의 석봉 스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욕 보살'만이 가부좌를 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방의 남자들은 갑자기 치열한 수행자가 되어 버린 석봉 스님의 태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원사를 찾던 첫 날 온 절을 발라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으니 그럴 만했을 것입니다. '인욕보살'이 된 석봉 스님은 다른 괜한 트집을 잡아 욕을 해도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나중에는 "깨달음의 방(堂)"이라며 때리기까지 했지만 석봉 스님의 인욕수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진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때 이후 석봉 스님은 40년 동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처음 문하에 받아들 때도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스님이 즐겨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제일법문'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 말씀에 평소 스님이 강조했던 인욕을 추가해 일러준 가르침입니다.

인욕제일정(忍辱第一) 지족제일부(知足第一) 무병제일무(無病第一)



평생을 인욕의 삶으로 일관해 온 운산 스님.

선우제일친(善友第一) 열반제일락(涅槃第一樂)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 장사요, 족함을 아는 것이 제일의 부자고, 병 없음이 제일의 이익이며, 좋은 벗이 제일 친한 이요, 열반이아달로 제일의 즐거움이라.

이 중에서도 인욕과 지족은 누구에게나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모름지기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스스로 족할 줄 알고 마땅히 참을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참을 줄 모르면 화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깊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아요. 오직 참음이 원망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을 행복의 열쇠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인욕의 삶을 살아야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지려하지 않으며, 내 행복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합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럴

탐·진·치 삼독 여의는 것이 생활속 수행

청정한 마음과 본래 성품 드러내는 힘도

인욕과 지족 실천하는 가운데 나와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쫓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교포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람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 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둬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종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동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사 동참 목록

- 아미타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수보살 : 일천만원
- 보현보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과 지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거나요. 평생을 삼독심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욕이라는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고, 이는 곧 생활 속의 수행인 것입니다.

지족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지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과 돈을 쌓아놓고도 더 많은 이익을 바라는 것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재화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에 있어요.

자연을 보세요. 산에는 새가 있고 강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새는 숲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물고기는 연못을 유유자적 노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숲에 있으면서 연못을 얻으려 하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앞세우면서 만족에 있다한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참지 못하면 화 부르고 원망으로 이어져

자연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면 옷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족을 모르는 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가 나누며 살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과연 옆에 있는 거지가 눈에 보일까요? 그러나 지족하면 보시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많은 것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롭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재물의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지족제일부'라고 했으니, 이것이 아깝로 행복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이라면 모름지기 인욕과 지족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인욕과 지족에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평정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힘도 인욕하는 가운데 지족을 알아야만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은사스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운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인욕과 지족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60여년 산중생활... 제자 시봉 사양하고 홀로 정진

운산 스님은 출가생활 60여년 동안 산중에만 머무른 운산(운산) 스님.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매스컴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다. 거처에 장식물을 하나도 두지 않을 정도로 겸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은 평소 인욕과 소욕지족의 삶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경계로 삼을 뿐이다. 지금도 은사를 모시겠다는 제자들에게 "네 공부나 하라"며 홀로 정진하고 있다.

1924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운산 스님은 12살 때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친견한 뒤 불교에 귀의했다. 1948년 입산했으며 1952년 수덕사에서 석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9년 부산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 직후부터 은사인 석봉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대구 동화사, 남지장사, 서산 개심사, 공주 갑사, 서울 법수원을 따라 다니며 시봉, 인욕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의정부 망월사 선방 등지에서 화두를 들다가 터만 남아 있던 진천 영수사를 재건, 운수의 길을 접고 30년간 수도했다. 현재는 아산 능인정사에서 손수 일운을 팔고 공양을 지으며 화두수행을 하고 있다. 운산은 법호이며, 법명은 혜월(惠栴)이다.

1924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운산 스님은 12살 때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친견한 뒤 불교에 귀의했다. 1948년 입산했으며 1952년 수덕사에서 석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9년 부산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 직후부터 은사인 석봉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대구 동화사, 남지장사, 서산 개심사, 공주 갑사, 서울 법수원을 따라 다니며 시봉, 인욕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의정부 망월사 선방 등지에서 화두를 들다가 터만 남아 있던 진천 영수사를 재건, 운수의 길을 접고 30년간 수도했다. 현재는 아산 능인정사에서 손수 일운을 팔고 공양을 지으며 화두수행을 하고 있다. 운산은 법호이며, 법명은 혜월(惠栴)이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경 스님 (下)

며칠전, 법경 스님으로부터 건국대 부속병원 종교실에 법당이 마련되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다. 비록 좁은 공간의 4평짜리 법당이지만 병원측에서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생활을 배려한 듯 하다.

이곳에서 법경 스님은 대단한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사탕을 곳곳에 갖다놓고 누구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각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그렇다고 종교를 가려가며 다니지는 않는다고 한다. 몸뚱아리 아픈 사람에게 무슨 종교적인 차별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병실을 순회하다 보면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더러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아이고 보살님'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법경 스님이 어느 병실을 방문했을때 이이다. 연로하신 뇌졸중 환자가 있었는데 불편한 몸으로 식사를 하다보니, 입가에 음식물을 묻히는 등 주위가 좀 어지럽혀 있어 뒤어드리고 챙기면서 간병이나 보호자가 있는가 여쭈더니 없다고 했다. 이후 법경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몇 차례 보살피 드리며 기도를 해드렸다. 어느날 병실을 찾았으나 자리에 안 계셔서 퇴원을 했거나 했는데, 다른 병동을 순회하던중 우연히 그 환자를 만나게 됐다. 자신을 보자마자 대뜸, "부처님이 오셨다"며 반가워하더라. 환자가 불행할 때 몇 차례 위로하며 기도를 해준 것이 전부인데 환자분 가슴속에는 잊혀지지 않았던지, 불편한 몸으로 더듬거리면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하며 자기가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고 부처님을 알았다고 했다.

법경 스님은 "수행이 부족한 소승에게 부처님을 비유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편하게 스님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하루속히 건강이나 되찾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를 정성껏 해주고 일어선는데, 그 환자는 다시 몸을 어렵게 일으키더니 주위 환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스님이 '부처님'이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인지, 거듭

'부처님'이며 엮주알을 꿰맸다고 한다. 언젠가는 일용직 직원이 남편의 49재를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상담을 해 오더라. 스님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집안에서 정성스럽게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할 수 있는 음식물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했더니, 굶이 스님에게 재를 부탁해왔다. 당일 그분의 자택을 방문해 정성스럽게 재를 지내드렸다. 끝내고나니 그 집 할머니가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담했던 보살님은 봉투를 주더라. 그런데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지하방에서 지내는 어려운 살림을 보니 그 봉투를 받을 수 없어, "이미 아드님(묘인)에게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허비해 보태라"며 돌려주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란 말씀을 또 하셨다.

더러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환자들이라도 만나게 되면 스님은, 함께 봉사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계시니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겠다고 병실을 체크

병원 종교실 작은 법당서 환자들의 마음 보듬어

해 원목실에 알려준다. 또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각 병실을 방문하면서 불교 신자라도 만나면 함께 일하는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 말씀드리겠다고 자신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한 수행자의 인간적인 배려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한 기회가 되었고, 환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불교적 정서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 전문분야 포교라는 것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지만 법경 스님은, 환자들 건강을 찾아 부처님 인연에 감사하고 사찰의 문을 두드릴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포교라는 것이 어려운 사찰의 원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포교사들 원력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불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사찰이라는 수행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성을 순화하고 공동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정신을 배양할 때, 우리 사회는 사찰의 존재와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덕을 청양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는, 건국대 부속병원 종교실의 작은 법당에서, 병고(病苦)로 불안하고 초조한 환자들을 위하여 '약사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 남양주 우형사 주지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참선방식

참선
방식

절방식

건강
좌상방식

지동차
방식

법회 및 기도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정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정시간의 좌선 및 운동시에도 전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결기에서 연산화기를 이루어 연신원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조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옆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편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에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찰에서 정통 '중국어' 회화 강좌!!

중국 정통 표준어(북경어의 진수) 중국 통일 언어정책의 선두 기수 **특강강성 하일빈사범대출신강사!**

중국어를 공부하시려는 분,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 중국에서 발음이 가장 표준어에 가까우며 커리큘럼이 좋기로 유명한 흥룡강성 하일빈사범대를 아시는가? 이 대학출신들이 전 중국방송계에서 친화의 중국 언어를 표준발음으로 통일 시키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가? 여기, 이 대학 출신으로 20년 교단경험의 강사가 정통 중국어회화 강좌를 펼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열의 있는 성인 수강생만 선착순으로 모집(20명)합니다.

원어민 전문강사의 전문교재활용으로 중국어 명문교육!!

▶ **강좌시작: 제1기 2005년 12월 5일(월)**
매주 (월·금요일) 2회, 1년 과정
시간대: 18:30 - 19:30(60분)

▶ **장 소:** 아미타사 (종로 3가, 비원 앞)

▶ **강 사:** 조송사 교수

▶ **수 강 료:** 월 5만원 (교재도 포함)

▶ **접수마감:** 2005년 12월 3일(토) 18:00

▶ **문 의:** 아미타사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구역 7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왕덕공 하차) 109, 151, 162, 171, 172, 272, 1012, 7025 비원길 왕덕공(비원)방향 우측노면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앞 아미타사(☎ 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강원도 망경사 033)374-8007, 9007